스마트 기술로 독거 중장년 '돌봄 안전망' 구축

구-고대 안암병원-의료사협 맞손
건강반지·활동량 센서 장비 제공
심박수 등 건강 상태 실시간 확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최근 광산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심장박동과 산소포화도를 분석하는 장비인 '건강반지'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시 광산구가 홀로 생활하는 중장년의 건강과 삶을 보살피는 '스마트 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우산권역에 있는 만성질환 독거 중장년 2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AI·IoT(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패턴과 주거 환경 정보와 건강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파악하는 한편, 방문 건강관리 등을 병행하며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틈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다.

광산구도 지난해 12월 고려대 안암병원,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주의료사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을, 고려대 안암병원은 AI·IoT 기기 지원과 돌봄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광주의료사협은 방문 건강관리와 대상자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추진체계가 구축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가정에 건강반지, 활동량·주거환경 센서 등의 장비를 제공하고, 매일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다.

대상자가 직접 착용하는 건강반지의 경우 심박수, 심박세동 발생 여부, 산소포화도 등 주요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어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설치한 각종 센서는 기침 소리와 같은 건강 이상 소리를 감지하고, 가정 내 활동량과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고독사 징후, 거동 이상 등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담인력 또는 돌봄 매니저 등의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광주의료사협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휴먼 돌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흔히 겪는 소외, 단절, 심리적 고립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거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돌봄 사각지대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맞춤형 행정복지 정보 제공, 안부 확인 및 건강문진, 감성대화, 응급 상황 대응 등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구강보건의 날' 주민건강 증진 행사 다채

충치 예방법 등 교육

광주시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 인식 제고와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광산구 행복드림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강검진과 맞춤형 진료와 더불어 충치 원인 및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구강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OX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너에게 바라는 6가지 9(口)강습관'을 주제로 시민들의 건강한 구강생활 실천을 위한 걷기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다.

걷기앱 '워크온'의 '행복으路(로) 걷기광산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루 6969보씩 9일 이상 걷고, 양치하기, 치실·치간칫솔 이용, 혀닦기 등 '6가지 9(口)강 실천 방법' 중 3가지를 실천한 모습을 인증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챌린지 달성자 중에선 200명을 추첨해 칫솔 한 상자를 지급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 구강상식 등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 구강건강 인식 향상과 생활 속 실천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상반기 합동점검

광주시 광산구는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재학대당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산구, 광산경찰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13명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중심으로 6월 한 달간 진행된다.

광산구는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정,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환경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치료와 법률지원 등도 연계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해자의 은폐 시도, 피해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미약 등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윤영봉 기자

"삶의 여유 선물합니다"…청년 리빙랩 운영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광주시 광산구가 2022 청년활력프로젝트 리빙랩 '청년 취미장, 암시롱 안해도 뭘하고 감시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족'을 사회로 이끌어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 송정동 일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팀 '차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청년 취미장, 암시롱 안해도 뭘하고 감시롱'은 ▲관심 분야가 맞는 청년들을 연결하고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놀장' ▲정형화된 삶의 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배우장'으로 구성됐다.

청년에게 뭔가를 더 잘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삶의 여유를 선물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

'놀장'은 오는 7월2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 이상의 자유로운 소모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배우장'은 8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만 19~34세)이다. /윤영봉 기자

행복잡화점 이전 개점 이벤트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행복잡화점'의 광산구 누리집 이전 개점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잡화점'은 다양한 정책 정보와 '생활 팁'을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으로, 당초 시민참여 모바일 플랫폼인 '광산ON(온)'의 상설 메뉴로 운영돼 왔다.

광산구는 더 많은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5월 광산구 누리집에 '행복잡화점'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새로 문을 연 행복잡화점을 이용한 시민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복잡화점' 속 '기쁨가득방' 게시판에 5개 주제(감사일기 쓰기, 건강팁 제공, 여행·맛집 자랑, 요리레시피 공유, 자유주제) 중 하나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똑똑참여방' 게시판에 이벤트 응모 신청을 하면 된다. 복수 참여가 가능하며 많이 쓸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광산구는 오는 27일 이후 5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결과는 행복잡화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봉 기자